



전북 서남권 물류산업 新거점 육성

전북자치도-고창군-삼성전자, 신활력산단에 3500억원 규모 스마트허브 단지 착공
2027년 준공 목표... 자율이동로봇 등 첨단 자동화 설비 도입 물류 전 과정 스마트화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 서남권을 물류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한다.
도는 10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고창군 고수면 봉산리)에서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박순철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총사업비 3,500억원을 투

자해 부지면적 18만 1,625㎡ 규모의 호남권 초대형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이는 삼성전자의 효율적인 남부권 물류·유통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이 단지는 자율이동로봇, 자동보관·회수시스템 등 첨단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물류 전 과정을 스마트화한 지능형·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 초기 단계에서는 도내 건설업체와 장비업체의 참여가 확대돼 지역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고, 건설장비·자재 수요 증가를 통한 경기 활

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현지 인력 채용 확대와 지역 협력업체 참여 유도로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도 마련된다.
단지 완공 후에는 500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장비·운송·서비스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고용과 매출 증대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지역 중소 물류·운송기업과 협력업체가 단지와 연계돼 지역 내 자원·인력·서비스가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전북 서남권의 산업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착공 이후에도 전담지원체계를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삼성전자의 전북 첫 투자이자 3,5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고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앞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의 착공이 고창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뜻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10일 고창신활력산업단지(고창군 고수면 봉산리)에서 열린 2025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식에 김관영 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박순철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사진을 하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10년간 백년하청에 불과한 실적"

민주이원택 의원, "추진 과정에서 연구용역 수행하고도 구체적 실행 성과는 제한적... 농식품부, 신속 실행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0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동안 제한적으로 표류하면서 백년하청에 불과한 실적을 거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9,430ha)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이상 다양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도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한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일대를 비롯한 도내 지역사회에서는 '계획만 있고 실행은 없다'는 여론이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식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인 개발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 약 5.3%)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는데도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는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농업용수와 상하수도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 부지의 안정적 활용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 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식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대,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핵심 주체'

300억 투입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주도
글로벌30 통한 펫바이오·동물의약품 특화 추진 연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세대 동물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사업에 핵심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대는 300억원이 투입되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주도해 동물 의약품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국가 핵심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북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 기반 신산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구역이다. 규제특례 적용과 재정지원(연

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세제 혜택 및 부담금 감면 등 정부와 기업 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구 조성을 연계해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통해 익산·정읍에 '펫바이오·동물의약품'

을 특화하는 JUC 트라이앵글이 이와 연계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이 센터는 동물용 신약개발의 임상(3상) 시험 수행을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로 거듭나게 된다. △반려 및 특수동물 의약품 임상시험시설 △난치성

질환 치료법 연구개발 △비임상-임상 연계시험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상용화 임상 단계(3상) 수행이 가능한 체계적 연구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전북대는 익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와 정읍 전북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450억원 규모, 180.16㎡ 면적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및 17개 기업·기관과 협력해 △신약 효능·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대상 전품목 확대 실증 △고양이 실험동물 지정 타당성 검증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시험 중복면제 검증 등 주요 실증과제를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동물 의약품 신약개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수입 의약품 대체 및 국산 기술 표준화를 견인하는 등 국가 동물웰스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양 총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대가

꾸준히 축적해 온 동물 의약품 연구 역량과 산학연 협력 기반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대학이 중심이 된 연구·산업 융합 모델을 완성하고, 국가 동물 의약품 산업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질병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내 동물 의약품 산업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임상시험센터 구축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전북대가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